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Art Style Reflected in Headgear after 1960's

Ju-Yeon Kim* · Hyo-Jin Lee

Chonbuk Natl. University* · Chonbuk Natl. University

For many centuries, headgear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fashion items because it has been the surest and the most effective way of expressing wearers' social status or characteristics. Today decorative aspect of a headgear is especially emphasized and headgear design is a major part of modern fashion design. In the mid 20th century, it became possible for people to make decision freely on the wearing of headgear due to the development of self-consciousness among women and the popularization of ready-made clothes. Headgear is no longer an essential item and is used as an optional item. Since the 1960s, people have enjoyed more freedom and fashion designers have made various clothes in a more free and creative way. Headgear design was not an exception. It also has developed into diverse form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fashion. Especially since the 1960s, headgear has become a popular way of expressing people's personalities or sense of fashion.

This study examined the symbolic meanings of headgear as a part of fashion which has become diversified in earnest since the 1960s and also researc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art style and the design of headgear. It aims to distinguish itself from the existing studies that have failed to develop specific theories and seek ways to promote studies concerning headgear.

1. In the 1960s: the emergence of new trends. In the 1960s new forms of art such as Pop Art and Op Art emerged and these style led to the development of metaphysical and geometrical patterns. Due to the influence of Minimal Art, the design of headgear was

simplified and Pill-Box style hats gained popularities.

2. In the 1970s: realiz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In the 1970s, people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leading to the emergence of naturalism. Headgear was also influenced by the new style and designers preferred headgear with no specific patterns in their design and created broad-brimmed hats such as cloche or beret. In terms of material, designers favored using material that gives the impression of natural one.

3. In the 1980s: romanticism and fantasy. With the emergence of new romanticism in the 1980s, people favored headgear designed in an elegant and romantic way. In addition, popular millineries around the world reflected the style of surrealism in the design of headgear.

4. In the 1990s: the deconstruction of thought. In the 1990s post modernism gained popularities. The main themes in headgear was diversity, variability, the unification of genre, and the abandonment of fixed idea. Against this background, hat designers adopted experimental patterns or styling in the design of headgear.

5. Since the year 2000 : the era of retro. Today millineries prefer headgear that can provoke nostalgia for the past years. Due to this trend of retro various types of design coexist and it has become impossible to classify the design by the style they have been affected. There are numerous types of hats and you can find all kinds of art style of the past in the design of the headgear.

1960년대 이후 모자에 반영된 예술양식의 특성 연구

김주연* · 이효진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

고대부터 신분, 위엄의 상징으로 착용되어오던 모자는 장식성과 기능성을 갖추며 패션을 완성시키는 필수요소로서 발달되어왔다. 또한 수세기 동안 다른 어떤 아이템도 능가할 수 없는 다양함으로 착용자의 신분과 개성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발군의 아이템이 되었다.

현대에 있어서의 모자는 이러한 장식성이 강조된 조형요소로서 현대 패션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5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옷에 어떤 모자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착장법이 의복 코디네이션의 기본으로 여겨졌으나, 20세기 중반이 지나며 여성들의 자의식 확립과 기성복의 발달로 인해 관습에 의해 강요된 모자 착용이 줄어들면서 모자는 더 이상 패션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아닌 선택적인 소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획일화된 스타일의 추구가 아닌 개인의 취향에 맞는 자유롭고 다양한 스타일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이후 자유로운 사회적인 분위기에 힘입은 디자이너들은 당시의 다양한 예술양식을 반영하며 자유로운 형태의 의복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으며, 모자 디자인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 예술양식과 의복디자인과의 관계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나타난 모자는 기존의 착장법과 관습에 의해 결정된 획일화된 스타일의 추구가 아닌,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자기의 패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외형의 표현 자체가 다양화된 패션 디자인에서 모자가 함축하고 있는 내적 의미를 고찰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자가 그 시대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예술 양식과 어떠한 조형성으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사적 고찰에만 치우쳐왔던 모자 연구 분야에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자료 제공에 그 의의를 둔다.

1. 1960년대; 새로운 시도

1960년대는 새로운 예술양식인 팝아트(Pop Art), 옵아트(Op Art)의 영향으로 모자도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이나 역동적인 색상 등이 나타났으며, 미니멀아트(Minimal art)로 인해 디테일이 생략되고 소형화된 필박스(pill box) 형태의 모자가 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1970년대; 환경에 대한 자각

1970년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자연주의가 대두되면서 모자의 형태에 있어서도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의 커다란 챙이 달린 클로셰, 베레모 등이 나타났다. 또한 자연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소재가 사용되었다.

3. 1980년대; 낭만과 환상

1980년대는 신낭만주의(New romanticism)가 등장하면서 우아하고 로맨틱한 이미지의 모자가 각광받았다. 또한 세계 유수의 밀리너리들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발상으로 모자를 창조해냄으로써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 1990년대; 사고의 해체

199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로 인해 다양성과 가변성, 장르의 붕괴,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해체가 모자패션의 주요 테마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험적인 형태와 착용방법을 이용한 다양함, 이질적 요소를 사용한 새로운 감각의 모자가 등장하였다.

5. 2000년 이후: 레트로의 향연

2000년 이후 들어서 나타나는 모자패션은 지난 세기에 대한 향수로 등장한 레트로의 영향으로 어떠한 예술양식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영향을 받은 형태가 공존하며 나타난다. 이로 인해 과거의 모든 예술양식이 총망라된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제시되고 있다.